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아젠다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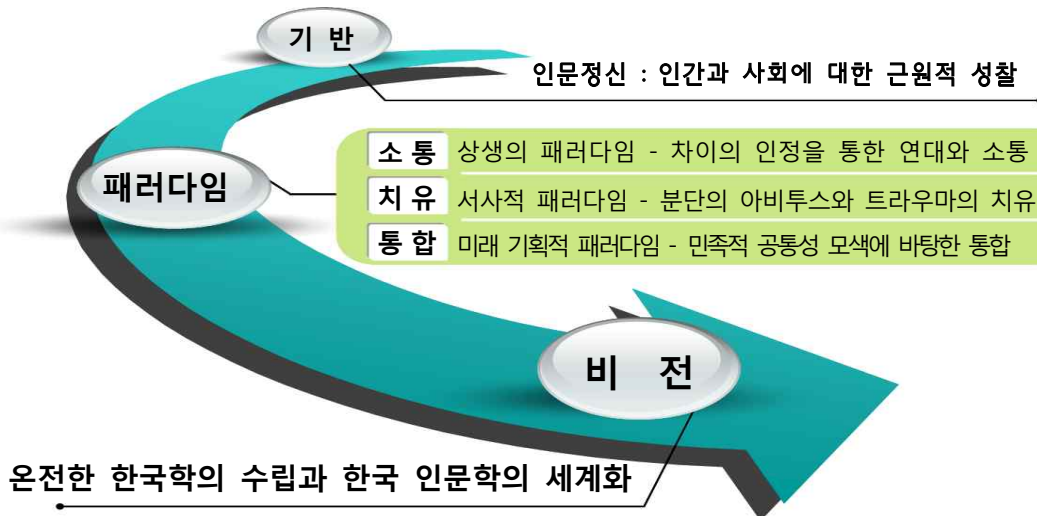
## “소통·치유·통합의 통일인문학”

### I. 아젠다 수행 계획

#### 1. 총괄

##### 1.1. 아젠다의 의미와 필요성

##### 1.1.1. 통일인문학의 기본 개념



#### ▶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원적 성찰에 바탕을 둔 소통·치유·통합의 통일담론

통일인문학은 체제이념 중심, 정치-경제적인 거시적 연구에 기초한 기존의 통일담론을 넘어서, 인간과 삶의 방식에 대한 근원적 성찰과 인문학적 전망에 기반을 둔 통일 패러다임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사람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어떠한 사회구조가 바람직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서만 통일의 의미에 대한 개방적이며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인문학적 상상력이 살아 있는 통일담론을 통해 통일이 한반도적 특수성과 민족사적 당위성의 측면만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현 단계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평화·인권·생태와 같은 인류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제라는 점이 폭 넓게 논의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통일이 체제통합만이 아닌 남북주민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문화적 통합의 문제이며,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타자를 수용하고 소통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부각될 수 있다. 통일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분단구조가 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보다 나은 상태로 남북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동태적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사회주의적 삶과 자본주의적 삶이 몸에 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적인 새로운 민족적 공동체를 창출하는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 ▶ 차이의 인정에 바탕을 둔 남북소통을 모색하는 통일담론

통일이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이해와 교류를 심화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 통일에 이르는 새로운 길은 그에 걸맞는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즉 상생의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상생의 패러다임의 중심에는 차이의 인정과 소통이 있다.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념과 정서, 그리고 생활문화를 존중하고 용인하는 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또한 통일은 차이의 인정에 그치지 않고, 연대와 소통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남북의 소통은 정치교류나 경제교류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내면화된 적대적 생활문화를 극복하고 서로를 내면적으로 이해하는 정서의 교감을 포함한다.

**상생의 패러다임은 통일 이후의 미래 문제만이 아니라 남북의 평화 공존이 절실한 지금 당장의 현실에서 필요하다.** 상생의 통일과정은 생략된 체제통일은 전쟁 등 극단적 방식을 함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생의 패러다임은 세계사에서 유래 없는 장기간의 휴전체제를 종식시키고 교류협력과정을 활성화하며, 평화 공존의 틀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리 낮은 단계의 만남이라도 통일에 이르는 과정은 단순히 통일의 전단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통일의 핵심을 이룬다.

### ▶ 서사적 관점에서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통일담론

분단은 단순한 체제 대립을 넘어 남북한 주민의 정서와 감수성, 욕망과 희망 등 삶의 결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반인문적 생활문화의 상처를 남겼다. 체제대립에서 비롯된 적대적 정서, 전쟁을 통해 강화된 중요심, 이산가족의 문제 등 남북한에 작용하고 있는 분단의 트라우마와 레드 콤플렉스와 군사문화 등 우리의 인식과 행동 속에 내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분단의 아비투스(習性)가 그 전형적 예다. 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트라우마와 부정적 아비투스는 정치와 경제의 통일을 위한 노력과는 구분되는 인문학적 성찰을 요구한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인문학은 문학치료라는 새로운 응용인문학을 활용하여 통일서사의 실천적 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분단 상황 속에서 발생한 정서적 상처, 타자를 배제하는 삶의 방식 등 반인문적 생활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서사적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따라서 통일인문학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정서에 남아 있는 분단의 트라우마와 우리 사회 내부에 집단무의식으로 내면화된 부정적 아비투스를 인간다운 삶을 저해하는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하고, 서사적 관점에서 이를 치유하려는 내용을 포함한다.

### ▶ 상호소통을 통해 통합적인 새로운 민족적 공통성을 모색하는 통일담론

통일은 단순한 정치-경제적인 체제의 통일이 될 수 없으며 민족 공통의 생활과 정서, 그리고 문화의 공통성을 확장하는 작업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 민족적 공통성을 모색한다는 것은 분단 이전의 어떤 역사적 시점으로 단순히 회귀하는 복고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동시에 민족 역량을 새롭게 재구축하고 만들어가야 할 미래적 기획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인문학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민족의 생활문화와 정서의 공통성을 새로운 차원에서 성찰하는 인문적 통일론이다.

따라서 **민족적 공통성의 모색**은 단순히 남북의 동질성을 확보하거나 주어진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민족적 동질성은 가치관, 심성, 행동방식 등의 차이를 단일한 틀에 용해시키는 획일주의, 사회적 부분영역들의 기능적 분화와 상대적 자율을 질식시키는 전근대적인 권력집중으로 전화하기 쉽다. 그러나 민족적 공통성의 모색은 과거의 전통을 바탕으로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측면을 부단히 확장시켜 가

면서도, 동시에 남북의 소통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미래지향적 가치로 열어둔다는 점에서 통일한국을 향한 미래기획적 패러다임을 지향한다.

### ▶ 온전한 한국학과 한국인문학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통일담론

20세기 식민지와 분단의 경험은 민족사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었지만, 온전한 한국학을 제시할 수 있는 역사적 조건이기도 하다. 단일 체제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문학과 철학과 역사학을 창출하였고, 서로 상반된 시각에서 학문적 성과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한국학의 풍부함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통일인문학은 남북한과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경험과 인문학적 자산을 바탕으로 차이의 인정과 상호소통, 그리고 통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온전한 한국학의 창출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또한 통일인문학은 한반도의 현실에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 전체와 공유할 수 있는 한국인문학의 세계화를 지향한다. 왜냐 하면 통일의 인문적 비전이 제시하는 소통·치유·통합의 패러다임은 민족적 동질성에 입각한 폐쇄적 공동체론이 아니라 근대 완성과 근대 극복의 문제의식은 물론, 평화·생태·인권의 보편적 가치 실현 등 인류사적 과제의 해결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인문학은 남북통일이라는 특수한 한국적 현실 속에서 출발하면서도,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원적 성찰에 바탕을 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 1.1.2. 기존 통일담론의 한계와 통일인문학의 필요성

### ▶ 분단의 상처와 적대를 실질적으로 극복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식을 담아내는 통일담론

기존의 통일담론은 통일의 당위성을 전제로 한 추상적 이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분단 60년 동안 통일의 민족사적 당위성에 대한 정치사회적 차원의 주입식 교육은 남북사회에서 강도 높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정작 통일의 절실한 필요성에 대 민는 오히려 둔감해 온 편이다. 통일의 당위성은 추상적 당위성이 아니라 분단의 구체적 고통에서 비롯된다. 분단의 고통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생활세계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

그런데 분단의 고통들은 하루아침에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처방을 요구한다. 분단의 고통을 고통으로 실감하지 못하는 불감증을 극복하기 위해, 분단 극복과 통일의 필요성을 사회구성원이 모두 참여하고 체험하는 일상의 일로 만드는 인문적 대중교육도 필요하다. 분단 상황 속에서 발생한 정서적 상처, 국가주의와 같은 이념적 적대, 타자를 배제하는 삶의 방식을 고통이나 병증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이를 치유하려는 다각적인 방법론과 실천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 ▶ 분단학문적 성격을 탈각하고 냉전체제와 분단의 질서관을 넘어서는 통일담론

기존 통일담론은 사회통합적 차원이 무시되고 체제통합에 치중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분단현실의 중층성과 다면성을 염두에 둘 때, 정치-경제 체제를 도외시한 통일문제의 접근은 그 한계가 명백하더라도, 정치경제가 본질이고 사회문화는 부수적이라는 체제우선적 시각은 냉전체제가 강요한 분단의 질서를 깨트

릴 수 없다. 특히 한반도는 체제갈등이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비화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제통합을 지향하는 통일담론이 쟁점화 될수록 오히려 통일에서 멀어질 뿐이다.

분단 60년을 지내오면서 남북한 사회에서는 체제대립이 심화되고 서로를 무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워하는 정서를 내면화시켜 왔다. 또한 자기검열로 인해 사고의 폭을 제한하거나 폐쇄적으로 만들고, 적과 나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횡행하고, 증오와 불신의 고착화 등 인문학적 상상력이 위축되고, 반인문적 사고가 자라났다. 이처럼 분단이 공동체의 바람직한 발전과 개인의 자유로운 삶, 나아가 학문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인문학은 분단학문적 폐쇄성을 극복하고 한반도에 철저히 내면화된 냉전문화를 해체하는 데 필요하다.

### ▶ 새롭게 형성되는 전(全)지구적 문화지형 속에서 통일을 바라볼 수 있는 통일담론

강고한 민족국가를 전제로 하는 기존 통일담론은 민족 동질성 회복론이나 부국강병적 민족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된 21세기의 전지구적 문화지형에 걸맞는 범세계적 시야를 결여하고 있다. 민족 동질성 회복론은 다양한 정체성을 억압하는 획일주의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부국강병론은 한반도의 주변강대국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북한의 고립적 주체화 전략과 남한의 일등국가지향적 세계화 전략은 모두 이러한 한계를 공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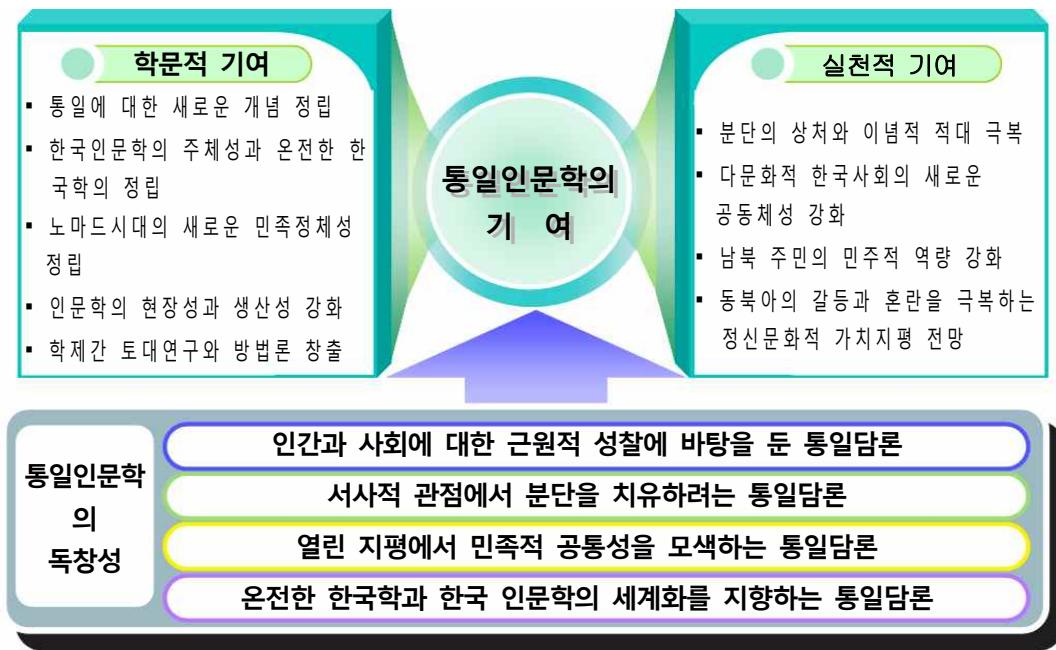
현재의 한반도는 근대화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탈근대적인 새로운 물결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은 근대성의 성취와 더불어 근대성의 극복도 요구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민족국가를 해체할 수도, 그렇다고 오로지 그것만을 절대선으로 삼을 수도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 근대와 탈근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통일담론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는 생태 위기가 전인류적 위기로서 부각되고 인권이념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권과 환경 등 인류보편적인 가치지향을 담아내는 통일담론이 요구된다. 또한 전지구적 차원에서 개인의 차원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적 연대, 다양한 형태의 상호의존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통일론의 관점이 필요하다.

### ▶ 서구중심의 인식들을 극복하고 주체적 학문지향이 살아 있는 통일담론

현재 한국의 인문학은 서구중심의 인식들에 종속된 나머지 한국의 구체적 현실에 뿌리박지 못하고 있으며, 사유와 현실의 한국적 맥락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단된 한국사회에서 통일은 우리의 미래를 가장 강력하게 규정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분단현실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이론화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과정에 대한 모색은 예상외로 빈약한 편이다. 분단을 화두로 분단현실을 분석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학풍의 조성은 학문의 주체성 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실천과제 중의 하나이다.

통일인문학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현실을 인문학적 성찰의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구체적 현실에 철저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국학의 핵심영역이다. 이른바 보편적인 서구적 가치와 제도의 이식이나 재현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국의 특수한 현실에 대한 성찰과 모색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학문적 주체성 확립은 우리의 역사, 경험, 현실 속에서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서 보편적 공감을 갖는 요소를 발견하려는 통일인문학을 필요로 한다.

## 1.2. 통일인문학 아젠다의 독창성 및 기대 효과



### 1.2.1. 학문적 기여

▶ **통일인문학은 오늘날 세계화에 부합하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에 기여한다.**

흔히 통일은 분단이 초래한 남북 이질화를 극복하고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타자성 없는 통일은 차이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동일성일 뿐이다. 남과 북은 함께할 수 있지만, 쉽게 하나가 될 수 없는 타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서로의 타자성을 인정할 때에만 통일은 동질화의 폭력이 아니라 평화의 과정이 될 수 있다. 통일의 진정한 의미는 남북 간의 공통적 요소를 찾고 만들어 내는 험난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타자성을 인정하면서 공존이라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새롭게 배우는 과정이다. 통일인문학은 통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함으로써 통일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학문 활동 전반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

▶ **통일인문학은 한국 인문학의 주제성과 남북을 아우르는 온전한 한국학의 정립에 기여한다.**

한국 인문학은 자신의 특수한 현실 속에서 보편적 요소를 재구성하여 세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통일인문학이 한민족의 특수한 민족적 공통성에서 출발하면서도 이를 평화, 인권, 생태 등의 가치와 결합하여 보편적 요소를 재구성하려는 학문적 시도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통일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정신문화적 소통을 위한 의의를 지닌다. 한국학은 남북의 한국인이 주체가 되어 한국인의 삶에 도움을 주고 대안을 마련하는 실천적 지향을 지닌 학문이다. 통일의 인문적 비전을 목표로 하는 통일인문학은 남한학도 북한학도 아닌 양자를 포괄하는 온전한 한국학의 정립에 기여한다.



▶ **통일인문학은 민족 정체성을 근대적 민족이 아니라 노마드 시대에 맞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새로운 민족 정체성 정립에 기여한다.**

우리의 학계는 단일의 정치공동체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결과로 인하여 민족과 국민을 쉽게 등치시키고 민족을 혈연집단으로 축소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노마드 시대에는 다양한 정체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정치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서도 정체성의 계기가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새로운 차원의 민족 정체성은 노마드 시대의 보편주의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새롭게 규정되어야 한다. 주체로서의 자아 정체감과 집단으로서의 민족적 정체감, 세계인으로서의 의식은 결코 단절된 개념이 아니라 함께 맞물리는 연속적 개념이며,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통일인문학은 민족 정체성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어야 할 과정적 성격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민족 정체성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통일인문학은 인문학의 현장성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함은 물론 인문학의 생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통일인문학은 현실적인 실천적 경험과 인문학적 성찰 사이에 벌어져 왔던 그 동안의 간극을 반성하고 철학·문학·역사학의 현장성을 담아낼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인문학의 생산성은 실용성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에 있다. 인간을 보는 관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연을 향유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성찰을 시도함으로써 통일정책을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기획할 수 있다. 통일인문학은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섬세한 논의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실용성을 넘어서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소통하는 인문학의 생산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기여한다. **통일인문학은 한국의 구체적인 현실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의 현장성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함과 동시에 인문학의 생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 **통일인문학은 학제간 통합연구를 위한 토대연구와 방법론 창출에 기여한다.**

통일문제는 특정한 하나의 전공분야에 한정된 연구로는 그 실상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통일인문학은 문학-역사학-철학이 공통적으로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과 통일, 공통성, 민족 정체성 등 핵심적인 기본개념을 공유함으로써 학제간 통합연구를 위한 공통의 시각을 창출한다. 또한 당대의 문학 작품과 생활문화 분야에서 철학적인 의제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시 그러한 파악을 통해 당대의 문학 작품과 생활문화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상호 피드백 과정을 통해 문·사·철의 유기적 연관을 강화함으로써 **학제간 통합연구의 토대연구와 다각적인 학제 연구를 촉발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 1.2.2. 실천적 기여

▶ 통일인문학은 치유와 통합을 위한 각종 연구 활동 및 교육활동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분단의 상처와 이념적 적대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다.

분단 이후 체제를 달리하면서 발생한 반통일의 정서, 북측의 반미·반남한 정서, 6.25 전쟁으로 야기된 적대감정, 경제적 격차에서 나온 괴리감, 이산가족의 상처 등은 고스란히 분단의 상처로 민족 개개인의 마음에 남아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에 집단적으로 내면화되고 각인된 반인문적 생활문화도 뿌리가 깊다. 통일인문학은 분단에 뿌리를 둔 상처와 적대 그리고 반인문적 삶의 방식을 병증의 차원에서 인식한다는 점에서 치유라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강조한다. 통일인문학은 다양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분단의 상처와 이념적 적대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다.

▶ 통일인문학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최근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이주민에 대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인종적인 선입견과 편견이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일인문학은 민족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오늘날의 다문화적 상황에서 배타적 민족주의를 경계하고 우리 사회 내 다양한 인종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통일인문학은 남북 주민의 민주적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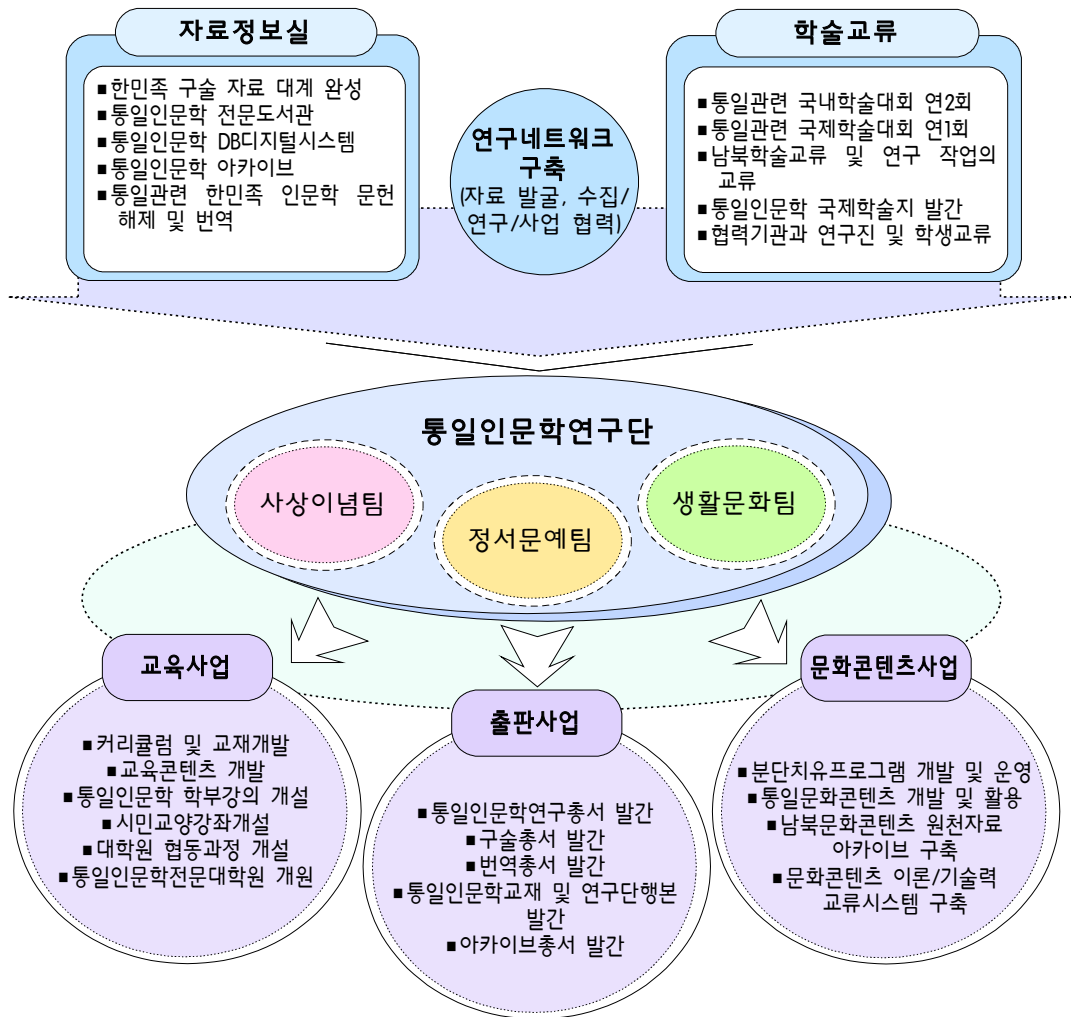
통일논의는 정부차원의 성명이나 입장표명에만 국한되지 않고 양쪽 주민집단의 의사를 반영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새로운 정치공동체에 참여할 시민들이 민주적 자기 입법의 주체가 되어 그들의 의지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인문학은 남북 주민들 간의 다각적인 민간교류를 통한 의사소통과 연대의 확대를 모색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합의하는 과정을 핵심 연구과제로 삼기 때문에 남북 주민들의 민주적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 통일인문학은 동북아의 내적 갈등을 극복하는 정신문화적 가치지평을 전망하는 데 유효하다.

분단현실은 그 발생조건이나 진행과정에서 외세가 개입되어 있으며 현재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북방삼각과 남방삼각이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통일은 남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가 경험한 20세기 침략주의를 극복하는 평화의 구심점이다. 분단 극복을 위한 정신문화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통일인문학은 부국강병적 통일론이 아닌 연대와 소통의 통일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북아의 내적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는 정신문화적 가치지평을 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1.3. 통일인문학 아젠다 수행방법

#### 1.3.1. 아젠다 수행 사업 총괄



통일인문학연구단은 국내·외 연구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연구자료 및 문헌들을 수집 발굴하는 '연구토대사업'을 기반으로 연구단의 연구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각종 연구협력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어진 연구 성과를 모아 출판, 문화콘텐츠 개발, 교육으로 외화하는 '연구외화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 1.3.2. 통일인문학의 토대연구와 학제적 구성

통일인문학의 학제적 구성의 토대를 이루는 학문은 한국학이다. 분단 속의 한국학은 한국 문학 연구든 한국사 연구든 남한 문학이나 철학에 한정되어 있다. 여기서 한국학은 남한 위주의 반쪽 한국학이 아니라 북한의 조선학과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인문학적 자산을 포함하는 온전한 한국학을 의미한다.



통일인문학은 사상이념, 정서문예, 생활문화로 구성된다. 통일한국의 인문적 가치와 이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한국학을 토양으로, 분단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정치경제적 구조, 분단체제가 남북주민의 일상적 삶에게 미친 사회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법학, 정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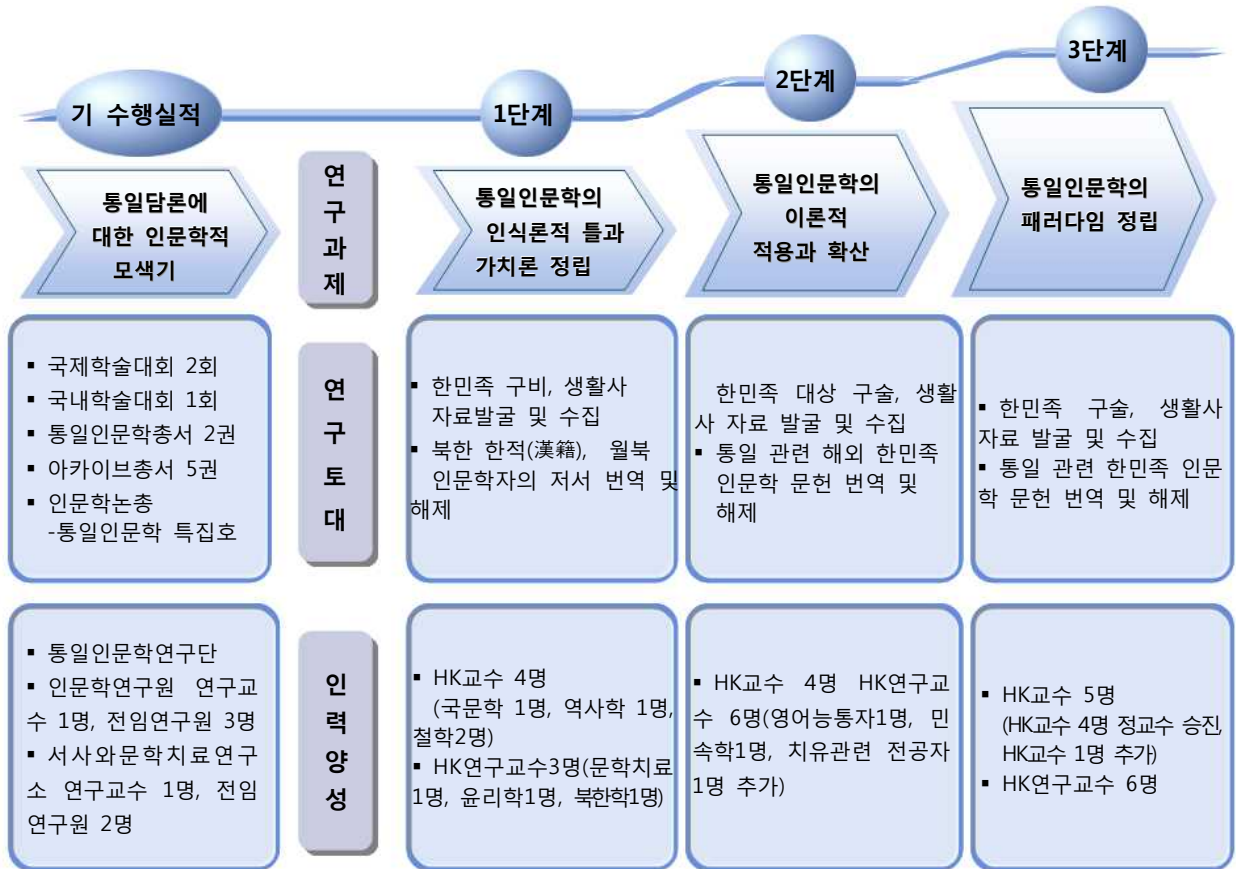


교학, 역사이론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사상이념팀은 이들 인접학문의 이론적 성과를 흡수하여, 통일한국의 이념적 토대를 모색한다.

분단의 상처와 적대를 극복하고 남북 주민의 인간적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학에 기초하여, 분단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인문학적 방법론인 문학치료와 문학작품 속에 담긴 서사 및 정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신분석학, 문학작품을 공연 또는 영상화하는 공연예술 분야의 성과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정서문예팀은 이들 분야의 이론적, 실천적 성과와 방법론을 두루 활용하여, 분단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남북주민의 내면적인 정서적 통일을 모색한다.

남북상생의 생활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학을 토대로, 전통적 민속문화를 다루는 민속학, 오늘날 남북주민의 생활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회사 연구, 한국적 특징을 담은 생활문화의 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하는 데 필요한 문화콘텐츠 분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생활문화팀은 민속학, 사회학, 문화콘텐츠 분야의 성과에 기초하여 남북 공생의 대안적 생활문화를 모색한다.

## 1.4. 단계별 연구사업 과제



### 1.4.1. 1단계 연구

연구사업은 항상 연구토대사업을 근거로 하여 시작된다. 1단계 연구사업의 목표는 ‘통일인문학의 인식론적 틀과 가치론 정립’이다. 분단과 통일을 다루어왔던 문학작품, 일상적 생활문화 등을 검토함으로써 통일인문학의 인식론적 틀을 정립하는 한편, 남북이 과거 공유하고 있는 정서-가치-생활문화들을 추적함으로써 ‘가치론적 전망’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북한 구술, 생활사 자료 발굴 및 수집과 북한 한적, 월북 인문학자의 저서를 번역 및 해제하는 연구토대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 1.4.2. 2단계 연구

2단계 연구사업의 목표는 ‘통일인문학의 이론적 적용과 확산’이다. 1단계에서 수행한 ‘통일인문학의 인식론적 틀과 가치론 정립’을 남/북이라는 현실적 대상에 적용하고 검증하는 실천적 연구에 중점을 둔다. 이런 연구 작업을 위해 중국연변, 러시아, 일본 내 한인 구비문학, 생활사 자료를 발굴 및 수집하는 작업과 통일 관련 해외 한민족 인문학자의 문헌을 번역 및 해제하는 연구토대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 1.4.3. 3단계 연구 및 인력양성

3단계 연구사업의 목표는 ‘통일인문학의 패러다임 정립’이다. 20세기 남북통합 지성사의 맥락에서 그 의의를 새롭게 조명하는 시간적 심화 확대와 세계사적 맥락에서 시야를 넓히는 공간적 심화 확대를 통해 통일인문학의 방법론을 정립하고, 통일의 인문적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연구토대사업은 1, 2단계의 성과를 이어 한민족 구술자료, 생활사 관련 자료들을 발간하고 통일 관련 한민족 문헌들에 대한 번역, 해제를 지속해 갈 것이다.

### 1.5. 연구단 장기 발전 계획



#### 1.5.1. 연구단의 중장기 발전 목표

**1-10년의 연구단 발전 목표 :** <통일인문학연구센터>를 구축하여 국내 최고의 통일인문학연구소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이 목표는 일차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갖춘 아카이브와 전문도서관을 포괄하는 ‘자료정보실’과 ‘문화콘텐츠연구개발실’, ‘분단치유개발연구실’, 대학원협동과정 통일인문학과를 주도하면서 이후 ‘통일인문학전문대학원’ 개원을 ‘통합한국학연구실’과 함께 수행할 ‘교육프로그램연구실’과 같은 재정적·인적 인프라의 구축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11-20년의 연구단 발전 목표 :** <통일인문학연구센터>는 건국대학교의 특성화계획과 관련하여 ‘통일인문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동아시아의 통합한국학 관련 최고의 전문교육기관이자 연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아울러 이 단계에서 <통일인문학연구센터>는 동아시아공동

체 형성 속에서 통일한국의 비전을 연구하면서 통일 관련 최고의 전문자문기관이 될 것이다.

**21-30년의 연구단 발전 목표 :** <통일인문학연구센터>의 최종 목표는 세계적인 한국 인문학 연구소가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통일인문학연구센터>는 <통일인문학국제센터>로서 ‘통합한국학연구소’, ‘분단치유개발연구소’, ‘문화콘텐츠개발연구소’, ‘교육프로그램연구소’, ‘자료정보원’이라는 5개의 독립적인 연구소를 산하 연구소로 갖춘 실질적인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전하는 것이다.

### 1.5.2. 중장기 사업 목표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통일인문학연구단의 세계적인 한국 인문학 연구소로의 성장이라는 중장기적 목표는 현재로서는 꿈만 커다란 기획처럼 보인다. 하지만 통일인문학연구단은 HK사업 10년 동안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와 같은 비전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 건국대학교의 ‘Dream Konkuk 2011’과 대학 특성화계획

건국대학교는 ‘Dream Konkuk 2011’이라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특성화계획)과 연계한 연구소 육성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통일인문학연구단은 이런 건국대학교의 대학 특성화계획 속에서 탄생했다. 건국대학교가 인문과학연구소를 인문학연구원으로 통합하고 <통일인문학연구단>을 HK사업의 단일주체로 선정한 것은 통일인문학을 문과대학의 특성화 전략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건국대학교는 통일인문학연구단의 HK연구활동을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8억 원 이외에 해마다 대응자금 2억 7천만 원을 따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응자금 중 1억 원은 연구보조원 인력비로, 1억 7천만 원은 희귀원천자료 발굴 수집과 복한 및 해외 통일인문학 문헌과 문화콘텐츠 독점계약, 문과대학 인문학 진흥 등의 사업에 활용할 것이다. 또한 연구단은 2단계 ‘커리큘럼과 교재 작업’에 바탕을 둔 ‘학부강의’, ‘시민강좌’ 개설을 시작으로 하여 3단계 ‘통일인문학협동과정’을 개설 운용함으로써 ‘통일인문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하여 건국대학교의 특성화를 이루어낼 것이다.

#### ▶ 대응자금을 활용한 디지털정보-문화콘텐츠 서비스시스템 구축

연구단은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받는 돈 이외에 매년 학교로부터 대응자금 2억 7천만 원씩을 지원 받는다. 연구단은 HK연구교수 인력비에 사용될 1억 원을 제외한 1억 7천만 원을 다양한 양질의 통일-한국학 관련 문헌들과 희귀원천자료, 그리고 해외동포들과 북한의 질 좋은 문화상품들의 발굴 수집, 인문학 진흥 등에 사용할 것이다.

DB전산시스템을 갖춘, 아카이브와 통일 전문도서관을 포괄하는 ‘자료정보실’과 ‘문화콘텐츠연구개발실’, ‘분단치유연구개발실’을 구축함으로써 연구소의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연구소로의 도약에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통일인문학연구센터>는 연구와 실천 양자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통일인문학의 연구센터이자 통일 관련 사업 네트워크의 허브로 성장할 것이다.

#### ▶ 연구-정보-문화콘텐츠-교육의 통합시스템으로서 통일인문학연구센터

통일인문학연구단의 10년 목표는 건국대학교의 특성화계획의 지원을 받아 '통일인문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통일 관련 전문 연구소이자 자문기관으로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통일인문학연구센터는 '통합한국학연구실'과 '분단치유연구개발실' '문화콘텐츠연구개발실', '자료정보실', '교육프로그램연구실'을 포괄하는 실질적인 통일인문학의 중심 센터로서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 II . 2단계 아젠다 수행 계획

### 1. 아젠다 수행 사업과 계획

단계	연차	주요 아젠다 수행 내용			비고
		연구토대사업목표	연구목표	연구외화사업목표	
1단계	계획	연구협력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통일인문학의 인식론적 틀과 가치론 정립	외화사업의 기반 구축	
	수행 내용	온·오프라인을 구비한 통일인문학도서관 개관	HK인력 아젠다수행논문 35개, 서적 7권, 역서 1권(민족공동성서시리즈 4권 완간)	시민강좌·영화제·영상공모전·DM·답사 등 콘텐츠기획개발	
2단계	수행목표	자료정보의 체계화 및 국제화	통일인문학의 이론적 적용과 확산	통일인문학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	
	1년차	온라인네트워크 국제화 기반 구축	코리안의 민족공동성 비교연구에 기초한 심층조사연구방법론	분단의 적대적 심리 지표 개발	
	2년차	통일인문학도서관 온라인서비스 영문화	코리안의 가치·정서·생활문화의 심층조사연구	적대적 심리 지표 검사 및 남북콘텐츠의 분류·비교	
	3년차	국제적인 전자 네트워크의 구축	코리안의 민족공동성 창출을 통한 남북의 소통·치유·통합 방안	치유프로그램 및 통일인문콘텐츠 개발과 통일의 인문적 지표 개발	
3단계	국제 네트워크 허브센터 구축	통일한국학에 포함한 통일인문학의 인문적 비전 방안	통일인문학 전문대학원 개원 기반 구축		

#### 가. 2단계 아젠다 수행 사업의 종류와 사업 계획

본 연구단은 선정 당시 제출한 계획에 따라 1단계에서 ‘인문학연구원’과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의 통합을 준비하고 2단계에서 이를 통합하여 <통일인문학연구센터>를 건설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2단계부터는 ‘인문학연구원’과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가 통합되어 컨소시엄이 해체되고 통일인문학연구단은 ‘인문학연구원장’ 직속의 건국대학교 인문학 특성화 사업단으로 재배치되면서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는 ‘인문학연구원’ 산하 ‘통일인문학연구단’으로 흡수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통일인문학연구단’은 기존에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가 담당하고 있었던 ‘치유’에 대한 연구를 연구단 산하에 설치하고 이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한, 본 연구단의 ‘소통·치유·통합의 통일인문학’이라는 아젠다의 수행에서 핵심축은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목표의 변화에 따라 ‘연구토대사업’과 ‘연구외화사업’도 그 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연구토대→연구→연구외화→연구토대→연구→...’라는



선순환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각의 사업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2단계 연구토대-연구-연구외화사업의 목표인 ‘자료정보의 체계화 및 국제화’-‘통일인문학의 이론적 적용과 확산’-‘통일인문학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실현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각각의 년차별 목표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선정 당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였다.

2단계 주요 연구토대사업 자료정보의 체계화 구축							
부문	주요 사업 내용	2단계			3단계	수정사항	
		1년차	2년차	3년차			
연구토대사업	자료 발굴 및 수집	한민족 구술, 생활사 자료 발굴 및 수집	○	○	○	2단계 3년차 사업인 자료정보실 통합구축을 통일인문학도서관의 온라인서비스의 국제화로 바꾸었음.	
	주요문헌 번역 및 해제	통일관련 해외 한민족 인문학 문헌 번역 및 해제	○	○	○		
	자료정보	근현대 주요 철학, 문학, 역사 관련 문헌의 서지학	○	○	○		
		통일인문학 DB 디지털시스템 서비스	○	○	○		
	자료정보실 통합 구축(→온라인서비스의 국제화)			○	○		

2단계 주요 연구목표 통일인문학의 적용과 확산				
	목표	사상이념팀	정서문예팀	생활문화팀
1년차	코리안의 민족공통성 비교연구에 기초한 심층조사연구방법론	코리안의 민족정체성-분단-통일의식 비교 및 심층조사 연구 방법론	코리안의 역사적 트라우마 비교 및 심층조사 연구 방법론	코리안의 생활문화 비교 및 심층조사 연구 방법론
2년차	코리안의 가치-정서-생활문화의 심층조사연구	코리안의 멘탈리티에 대한 심층조사연구	코리안의 역사적 트라우마 심층조사연구 및 치유 방안 탐색	코리안의 생활문화에 대한 심층조사연구
3년차	코리안의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남북의 소통-치유-통합 방안	민족 공통의 가치와 통일한반도의 인문적 비전	민족 공통의 서사를 활용한 분단트라우마 치유 모색	남북 및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생활문화 통합 방안

2단계 주요 연구외화사업 통일인문학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							
부문	주요 사업 내용	2단계			3단계	수정사항	
		1년차	2년차	3년차			
연구외화사업	교육	통일인문학 관련 커리큘럼 및 교육콘텐츠 개발	○	○	○	○	1단계에서 이미 시작
		통일인문학 학부 강의 개설		○	○	○	
		통일인문학 시민 교양 강좌 개설		○	○	○	
	출판	분단치유를 위한 구술총서 발간	○	○	○	○	1단계에서 이미 시작
		일반인을 위한 통일관련 저서 발간	○	○	○	○	1단계에서 이미 시작
	문화콘텐츠 연구개발	분단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	2단계 1년차 사업으로
		남북 문화콘텐츠 원천자료 아카이브 구축	○	○	○	○	1단계에서 이미 시작
		통일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			○	○	1단계에서 영화제, 영상공모전으로 시작
		문화콘텐츠 연구개발실 구축	○	○	○	○	
	추가	통일지표 개발 및	분단의 적대적 심리 지표개발	○	○	○	○

사업	연구	분단의 적대적 심리 지표에 따른 조사-연구		○	○	○	의 정서적-가치적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치유프로그램에 기초한 문화콘텐츠생산 사업 추가 도입
		탈북자 치유프로그램 개발			○	○	
	통일인문콘텐츠생산	통일의 인문적 지표 개발			○	○	
		민족공통의 문화콘텐츠생산			○	○	

## 나. 사업별 2단계 계획

### 1) 연구 목표와 추진방향

·1년차 연구목표 : 우선, 2단계 ‘통일인문학의 적용과 확산’을 연구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단계에서 제출된 통일인문학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사회적 실천에 적용하여 통일인문학이라는 이론적 패러다임이 사회적, 국가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의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2단계의 핵심적인 연구과제는 ‘치유프로그램 개발’이나 ‘통일인문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연구가 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이론적 패러다임’을 정립한 1단계의 ‘설문조사연구’에나 나아가 ‘설문조사연구’에서 드러난 실태를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단은 2단계 1년차 연구목표를 ‘코리언의 가치-정서-생활문화의 실태 파악’으로 잡았다. 이것은 2단계 1년차 연구가 기본적으로 ‘민족공통성프로젝트’의 ‘2차 심층면접 및 구술-현장조사연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2차 심층면접 및 구술-현장조사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1단계 3년차의 연구종료와 함께 발표된 ‘민족정체성, 역사적 트라우마, 생활문화, 분단-통일의 식’ 각각에 대한 ‘한국인-탈북자-재중 조선족-재러 고려인-재일 조선인’의 연구를 그들 상호 간에 비교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왜냐 하면 본 연구단의 연구가 코리언 디아스포라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분단극복과 통일한국의 인문적 비전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단이 연구하는 디아스포라는 오늘날 유행하는 다문화주의나 탈식민주의론에서 연구하는 ‘디아스포라 연구’가 아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일반론의 관점에서 연구하지만 본 연구단은 ‘디아스포라’를 ‘코리언’으로 다룬다. 따라서 본 연구단은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각각을 연구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이 한민족의 가치-정서-문화를 공유하면서도 각기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 차이들의 접속-접합과 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분단극복과 통일한국의 미래적 상을 열어가는, 통일의 인문적 비전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단은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한국인-탈북자-재중 조선족-재러 고려인-재일 조선인들의 가치-정서-문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서 ‘2차 심층면접 및 구술-현장조사연구’의 기본적인 인터뷰조사대상 및 연구방법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하여 2단계 1년차 연구목표인 ‘코리언의 민족공통성 비교연구에 기초한 심층조사연구방법론’을 정립하며, 이에 기초하여 2년차 2년차 연구목표인 ‘코리언의 가치-정서-생활문화의 심층조사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년차 연구목표:** 본 연구단은 2단계 1년차의 ‘한국인-탈북자-재중 조선족-재러 고려인-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추출된 ‘차이와 공통성’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심층조사연구방법론’에 기초하여 2년차의 ‘코리언의 가치-정서-생활문화의 심층조사연구’로 나아갈 것이다. 애초 본 연구단이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포함하는 ‘민족적 협력’의 창출로서 통일을 이야기한 것은 코리언 디아스포라가 ‘식민지-분단의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과 역사적-지정학적으로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주로 거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단은 분단극복과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지혜와 거주국 내에서의 여론창출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창출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본 연구단은 2단계 1년차에서 파악된 각국에 거주하는 코리언 디아스포라와 남/북의 가치-정서-생활문화의 차이와 공통성을 추출하여 새로운 통일한국의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적인 가치-정서-생활문화의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단계 2년차는 바로 이와 같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민족의 전통문화를 변용해 온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가치-정서-문화적 차이에서 그 연대와 접속, 접합의 지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그들 각각이 다른 변용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족정체성’과 ‘민족문화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남과 북이 연대할 수 있는 방향과 소통의 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2단계 2년차에서는 1년차에 얻어진 코리언의 비교 연구와 심층조사연구방법론에 기초로 하여 남과 북의 가치-정서-생활문화에 대한 차이와 공통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사회적인 대안들을 마련해갈 것이다.

이 경우, 연구에서의 난점은 북의 가치-정서-생활문화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본 연구단은 탈북자들을 연구의 핵심 대상으로 삼고 이들에 대한 ‘심층면접 및 구술-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북에 대한 생활문화연구가 북의 공식적 출판물에 의존함으로써 구체적인 생활문화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탈북자의 생생한 구술에 근거하여 북에서 출판된 문헌자료들에 근거한 연구를 넘어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3년차 연구목표:** 2단계 3년차 연구목표를 ‘코리언의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남북의 소통·치유·통합 방안’으로 잡은 것은 2단계 1-2년차에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근거로 하여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한민족의 민족공통성을 가치-정서-문화적 측면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인문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공통성’은 이미 1단계에서 제시된 통일인문학의 연구방법론이자 통일방안의 철학적 입장으로, 2단계 1-2년차 연구인 ‘코리언의 민족공통성 비교연구에 기초한 심층조사연구방법론’→‘코리언의 가치-정서-생활문화의 심층조사연구’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통합방안’을 찾는 철학적 토대이다. 따라서 3년차 연구인 ‘코리언의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남북의 소통·치유·통합 방안’이 제시되면 그 후 본 연구단은 정책대안 및 대안적인 통일인문콘텐츠 생산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단은 이미 선정 당시 제출한 계획서에서 아젠다 명을 ‘소통·치유·통합의 통일인문학’으로 잡고 그 부제로 ‘통일의 인문적 비전과 한국인문학의 세계화’라고 명명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단이 ‘통일의 인문적 비전’뿐만 아니라 현재 분단으로 인해 갈라져 있는 남과 북의 한국학을 통합한 ‘통합한국학’을 만들어서 이를 세계화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단계에서 ‘통일의 인문적 비전을 담은 정책 대안이나 구체적인 방안들’이 만들어진다면 그 후 본 연구단은 3단계의 ‘통합지성사’ 연구와 ‘통합한국학’ 연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2) 아젠다 수행의 핵심 사업과 2단계 계획

본 연구단은 2단계 3년차에서 ‘치유프로그램’ 및 ‘통일인문콘텐츠생산’을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 본 연구단은 ‘치유프로그램개발팀’을 중심으로 1년차에서 ‘분단의 적대적 심리 지표’를 개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통일인문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 작업으로서 남과 북의 영화, 드라마, 가요 등의 현대적인 콘텐츠들과 고전문학, 설화, 민속들의 자료를 축적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개발팀’을 중심으로 1단계에서 이루어진 ‘통일인문학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기초로 하여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본격화할 것이다.

따라서 ‘콘텐츠개발팀’을 중심으로 2년차에서는 1년차에서 수집된 각종자료들을 유형화하고 분류하면서 비교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이후 3년차에서 ‘통일인문콘텐츠생산’을 본격화할 것이다. 게다가 본 연구단은 1년차에서 개발된 ‘분단의 적대적 심리 지표’를

가지고 2년차부터는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분단의 적대적 심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매년 검사하는 조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2단계 3년차가 지나면 ‘코리언의 민족 공통성 창출을 통한 남북의 소통·치유·통합 방안’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와 결부시켜서 ‘통일의 인문적 지표’를 개발하고 3단계부터는 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통일인문학도서관과 온라인서비스의 국제화:** 통일인문학도서관의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2단계 1차년도에는 통일인문학도서관운영시스템으로 재편하고 ‘관장-상근자’ 직속 체제 하에 ‘운영팀’과 ‘국제화팀’을 설치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영어 능통자’를 HK교수로 임용하여 ‘국제화’를 위한 인적·재정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통일인문학 관련 자료 보유 기관의 현황 파악, 해외 한국학 기관·도서관 기초 현황 조사 등을 진행하여 2차년도에는 먼저 국내 통일인문학 관련 기관(국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과 ‘자료협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일인문학도서관의 운영을 더욱 체계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온라인서비스부터 영문화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차년도에서는 온라인서비스의 영문화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다양한 온라인 연구자 네트워크들과의 연결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A&HCI급 국제학술지’를 겨냥한 영문학술지의 네트워크적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전자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콘텐츠개발팀과 통일인문콘텐츠 생산 사업:** 대외사업부 산하 콘텐츠개발팀은 1단계에서 완성된 통일인문학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현실 속에서 인문콘텐츠를 통한 ‘통일인문학의 이론적 적용과 확산’을 위한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단계부터 시작한 통일영화제는 연 1회 상반기에 진행하고, 수시로 진행하던 통일영화상영회를 활성화하여 연 2회 진행하면서 그 질을 높여 나갈 것이며 ‘제1회 전국대학생 통일영상 및 영화비평 공모전’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DMZ답사프로그램을 통일인문학연구단의 콘텐츠로 만들어가는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2단계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분단의 적대성을 치유하거나 민족공통의 서사를 창출할 수 있는 ‘통일인문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단의 ‘콘텐츠개발팀’은 1년차에서 남북의 영화-드라마-가요와 같은 콘텐츠들을

수집하여 ‘통일인문학도서관’에 비치하고 2년차에서 이에 대한 분류와 유형화 및 비교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3년차에서 남북 연대와 소통에 필요한 콘텐츠, 분단극 복의 콘텐츠를 발굴 또는 생산할 것이다.

·**교육개발팀과 통일인문학교재 및 프로그램개발:** 2단계에서 본 연구단은 대외사업부 산하에 ‘교육개발팀’을 새로 설치하고 통일인문학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대학교 양 강좌 운영·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발, 통일인문학아카데미 과정 개발·운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 협력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교육개발팀’은 연2회 매학기 진행하던 시민강좌를 연 1회로 줄이는 대신 하반기 시민강좌를 ‘통일인문학 아카데미’라는 큰 기획 속에서 1년차에는 대중용교과서 개발 및 중고등학교 통일인문교육용 통일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2년차에는 이를 건국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에서 시범적 운영을 한 이후, 3년차에서 통일교육 전문콘텐츠 생산으로 이어갈 것이다.

또한, 1년차에는 통합한국학전문대학원 개원이라는 목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부 강좌 ‘통일의 인문학적 이해’를 더욱 전문화하고 2년차에는 통일인문학협동과정 개설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고 3년차에는 건국대학교 문과대학에 ‘통일인문학협동과정’을 개설하거나 시민강좌와 결합된 ‘통일인문학 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자 한다.

·**‘치유프로그램개발실’과 ‘치유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단은 2단계에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외사업부’ 산하에 치유프로그램개발팀’을 새로 설치하고 치유프로그램 및 치유를 위한 문화콘텐츠생산 프로그램을 본격화할 것이다.

분단의 트라우마는 ‘남북의 적대성’이 작동하는 사회심리적 토양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단은 1년차에서 ‘분단의 적대적 심리 지표’를 만들고 2년차부터 한국사회에서의 ‘적대적 심리 지표’가 어느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매년 조사-연구할 것이며 이를 정책보고서로 발간할 것이다.

또한, 1단계에서 이루어진 ‘탈북청소년’에 대한 구술상담 및 문학치료를 원용한 치유프로그램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의 HK사업단인 인문치료사업단’과 협력하여 ‘탈북자 치유 임상’을 2년차부터 가동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개발팀’과 협력하여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을 활용한 치유효과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서문예팀’의 남북고전문학이나 설화, 또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공통서사를 발견하고 이를 분단치유의 공통서사콘텐츠로 개발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 2. 아젠다 세부 수행 계획

### 가. 1년차 연구목표와 세부계획

□ 연구 목표 : 코리언의 민족공통성 비교 및 심층조사연구 방법론

□ 연구의 기본 방향

1년차 연구의 기본방향은 첫째, 1단계에서 1차 설문조사에 기초한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역사적 트라우마, 생활문화, 분단-통일의식’에 대한 연구를 실증적 비교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이다. 1차 설문조사는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트라우마 등에 대한 객관적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지만 조사대상자들의 심층적인 생각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정량적 방법 일반이 갖는 단점을 지닌다. 따라서 1년차 연구의 기본방향은 둘째, 1차 설문조사 연구와 비교 연구의 실증적 연구로부터 심층조사 연구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론을 고안하는 작업이다.

□ 팀별 연구과제

---

사상이념팀 : 코리언의 민족정체성·분단-통일의식 비교 및 심층조사 연구 방법론  
정서문예팀 :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 비교 및 심층조사 연구 방법론  
생활문화팀 : 코리언의 생활문화 비교 및 심층조사 연구 방법론

---

### 1) 사상이념팀 : 코리언의 민족정체성·분단-통일의식 비교연구

1단계에서 남북주민과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역사적 트라우마-생활문화-분단·통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거주국별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단계 1년차에서 사상이념팀은 민족정체성과 분단·통일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인-북한이탈주민-재중 조선족-재일 조선인-재러 고려인을 상호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차이와 공통성을 해명할 수 있도록 각 거주국의 특정한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콘텍스트를 고려할 것이다.

## 2) 정서문예팀 :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 비교연구

정서문예팀은 2단계 1년차에서 한국인-북한이탈주민-재중 조선족-재러 고려인-재일 조선인이 각각 체험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실증적 비교분석을 통해 코리언 전체의 역사적 트라우마의 구도와 윤곽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3) 생활문화팀 : 코리언의 생활문화 비교연구

생활문화팀은 1단계에서 민족공통성 프로젝트의 생활문화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한국인, 북한이탈주민,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조선인 각각의 생활문화상의 특징을 추출한 바 있다. 생활문화팀은 2단계 1년차에서 이들 5개국에 살고 있는 코리언의 생활문화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비교분석 작업은 각 지역별 코리언 생활문화의 전체적인 양상과 추이를 밝히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4) 세 팀의 공동과제 : 심층조사 연구방법론의 도출

사상이념팀·정서문예팀·생활문화팀은 2단계 1년차에 민족공통성-분단·통일의식, 역사적 트라우마, 생활문화에 대한 비교연구와 동시에 심층조사연구를 기획하고 이를 위한 방법론을 공동으로 도출할 예정이다. 심층조사 연구방법론을 도출하는 작업은 면접조사에 활용할 조사지를 구성하는 일과 구술조사에 적용할 유효한 질문항목들을 마련하는 일과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1년차에 세 팀 공동으로 도출한 심층조사연구 방법론은 2단계 2년차의 가치-정서-생활문화의 심층조사 연구에 적극 활용될 것이다.

### 나. 2년차 연구목표와 세부계획

□ 연구 목표 : 가치-정서-생활문화의 심층 조사·연구

□ 연구의 기본 방향

2년차 연구의 기본방향은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 조선인 각각을 연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민족의 가치-정서-생활문화를 공유하면서도 각기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 차이들의 접속을 통해서 통일한반도의 미래적 상을 열어가는 연구에 초점이 있다. 이를 위해 2년차에서는 1년차에 도출한 심층조사 연구방법론에 의거하여 코리언의 가치-정서-생활문화의 심층조사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 □ 팀별 연구 과제

---

사상이념팀 : 코리언의 멘탈리티에 대한 심층조사연구

정서문예팀 :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 심층조사연구 및 치유 방안 탐색

생활문화팀 : 코리언의 생활문화에 대한 심층조사연구

---

### 1) 사상이념팀 : 코리언의 멘탈리티에 대한 심층조사연구

사상이념팀은 2단계 2년차에서 남북주민과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멘탈리티와 가치관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해 각 지역의 코리언들이 가치관이나 멘탈리티에서 보이는 차이와 공통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추출하고, 그 연대와 접속의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이는 통일한반도의 미래를 여는 인문적 비전을 해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코리언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정서-생활문화적 차이와 공통성에서 그 연대와 접속의 지점을 발견하려는 노력도 포함된다.

### 2) 정서문예팀 :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심층조사연구 및 치유방안 탐색

정서문예팀은 2년차 연구목표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심층조사연구 및 치유 방안 탐색’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년도에 마련한 심층조사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각 집단의 표본에 대한 면접조사를 수행하고,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의 실체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구술자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구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이 될 표본 수는 각 집단별 20명 수준으로 기획하고 있다. 이들 구술조사 내용을 녹취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의 양상과 더불어 그 치유 방안들을 탐색하는 연구를 2차년도 최종목표로 삼는다. 이 치유 방안에 대한 고민은 대외사업부의 치유프로그램개발실의 연차 목표와 연계시켜 실행 방안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 3) 생활문화팀 : 코리언의 생활문화에 대한 심층조사연구

생활문화팀은 2년차에서 1년차에 코리언 생활문화 비교 및 심층조사 연구방법론 구축을 통해 만들어진 심층조사연구의 틀을 가지고 한국인, 탈북자,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코리언 생활문화의 공통성 심층조사연구’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특히 코리언의 생활문화를 1)언어·2)의식주·3)의례 및 세시풍속·4)가족생활·5)교육·6)직업으로 대분류한 후, 코리언들의 생활문화 실태에 대한 심층조사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심층조사 작업은 심층면접 및 전문가 구술을 주로

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2년차의 연구의 주자료는 심층조사한 구술채록 내용이 바탕이 되므로 2년차 상반기에는 심층면접 및 전문가 구술 채록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한 후, 이를 자료로 활용하면서 연구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 다. 3년차 연구목표와 세부계획

□ 연구 목표 : 코리언의 민족공통성 창출을 통한 소통·치유·통합의 구체적 방안

□ 연구의 기본 방향

3년차의 연구의 기본 방향은 2년차에서 수행된 코리언 디아스포라와 남북의 가치-정서-생활문화의 차이와 공통성을 근거로 통일한국의 인문적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가치-정서-생활문화의 대안들을 제시하는 데 있다.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한민족의 민족공통성을 가치-정서-생활문화적 측면에서 구체화하는 인문적 비전의 제시는 1단계에서 마련한 통일인문학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확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팀별 연구 과제

---

사상이념팀 : 민족 공통의 가치와 통일한반도의 인문적 비전

정서문예팀 : 민족 공통의 서사를 활용한 분단트라우마 치유 모색

생활문화팀 : 남북 및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생활문화 통합 방안

---

#### 1) 사상이념팀 : 민족 공통의 가치와 통일한반도의 인문적 비전

사상이념팀은 2단계 3년차에서 2년차의 ‘한국인-탈북자-재중 조선족-재러 고려인-재일 조선인들의 멘탈리티에 대한 심층조사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차이와 공통성’을 근거로 ‘민족 공통의 가치와 통일한반도의 인문적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코리언의 멘탈리티와 가치관에서 나타난 차이와 공통성이 접속하고 연대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연구는 분단극복과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민족 전체의 합력을 만들어내고 통일한반도의 인문적 비전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

사상이념팀은 민족공통의 가치와 통일한반도의 인문적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코리언 디아스포라가 지닌 역할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민족문제의 방관자이거나 남북의 보조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단극복과 통일의 민족적 주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남북의 적대성을 벗어나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

고 양자를 매개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위치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 2) 정서문예팀 : 민족 공통의 서사를 활용한 분단트라우마 치유 모색

정서문예팀은 2단계 3차년 연구목표를 ‘민족 공통의 서사를 활용한 분단트라우마 치유 모색’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서사를 우리의 설화나 고전소설, 더 나아가 현대에 개발된 문화콘텐츠에서 발굴하고 이를 분단트라우마 치유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단 이후 집단 의식 속에 내재한 상호적대감을 연대감 형성으로 전환하기에 효과적인 민족 공통의 서사를 발굴하고, 이를 일반 대중의 독서물이나 영상물로 개발하여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사업 역시 대외사업부 산하의 콘텐츠연구개발실과 치유프로그램개발실의 연차적 사업과 연동되어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것이다.

## 3) 생활문화팀 : 남북 및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생활문화 통합 방안

2단계 3년차에서 생활문화팀은 ‘남북 및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생활문화 통합 방안’을 연구목표로 세우고 있다. 이는 1년차에 연구해온 ‘코리언 생활문화 비교’와 2년차에 연구를 수행해온 ‘코리언 생활문화의 공통성 심층조사연구’의 결과를 수렴함으로써 2단계의 연구목표인 통일인문학의 이론적 적용과 확산이라는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남북 생활문화 통합의 구체적인 방안은 1년차와 2년차에 수행해온 비교연구와 심층조사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3년차에는 우선 연구단에서 수행된 실태연구 및 비교연구와 기존 연구사를 교차 분석하는 가운데 통일인문학이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학문적 지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실태조사와 비교 연구를 통해 생활문화의 통합에 유의미성을 갖는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학계에 널리 알리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남북한 주민과 코리언 디아스포라가 담지해온 생활문화의 공통성을 어떻게 생활문화 통합의 방안으로 도출할 것인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단은 코리언 생활문화 분단을 극복하고, 생활문화 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